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10호 [루제 제25353호] 주제 105 (2016)년 7월 28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태양상에 인민 군장병들과 각계 총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꽂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同志의 통상
과 태양상에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돐에 즈음하여 인민 군
장병들과 각계 총 근로자들, 청소
년 학생들이 꽂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전시하였다.

만수대 언덕으로는 조국에 방전
쟁을 빛나는 승리에 이끄시여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영웅조선의 전신선화
를 창조하여 주신 어버이 수령님
에 대한 타할없는 경모의 정에 넘
친 군중들의 물결이 끌없이 금이
졌다.

만수대 언덕으로는 조국에 방전

쟁을 빛나는 승리에 이끄시여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영웅조선의 전신선화
를 창조하여 주신 어버이 수령님
에 대한 타할없는 경모의 정에 넘
친 군중들의 물결이 끌없이 금이
졌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조선인
민군부대, 청양상사에 각급 기
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
로 된 꽂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꽃바구니들의 땅에 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방이 빚어져있었다.

빛날 반제 전승의 자랑찬 전통을 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혁보유국
참가자들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마련해주시었으며 이 땅에 세계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부여성, 인
민보안성, 만수대창작사 등을 비롯한
평양시내 여덟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도 절절한 그리움의 대가로 절체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에 인민군부대, 기관,
기업소 등의 명의로 된 꽂바구니
들이 절정되었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
들, 청소년 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숭고한
정의를 표시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
의 전승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을
전개해 옹호고수하고 경애하는
김정은同志의 평도따라 조선로동
당 제7차대회가 열린 올해를 우리
혁명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주제조선
의 영웅적 기상을 힘 있게 맡쳐갈
열의에 넘쳐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써야 인사들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로써야 아동개주식회사 모스크바
주식은행 예브레브란크피사장과 예브레브란크피사그룹
총사장이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로써야 아동개주
식회사 모스크바주식은행 예브레브란크피사그룹 총사장 예, 아, 예브
로브가 이 나라 주체 우리 나라 특별전권대사와 대표부

임원한 종모와 위원장에 대해 회복되었고 하면서 그이의
평도밀에 조선인민당 제7차대회에서 세시된 파업들을

성직으로 수행하기를 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서있으며 이 대접에서 현전현승하고있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미세와의 대결을 승리에 이끄시는 위대한 평상이신 김정은同志의 고령도자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그이께서 보다 큰 승리를 거두실것을 축
원한다.

예, 아, 예브로브총사장은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사업, 인
민증시의 치적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의 고령한 종모와 위원장에 대해 회복되었고 하면서 그이의

평도밀에 조선인민당 제7차대회에서 세시된 파업들을

성직으로 수행하기를 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전국의 전쟁로병들이 받아안은 뜨거운 사랑

온 나라가 위대한 조국에 방전승리 63돐을

맞길에 경축하는 속에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는데 공원한 전쟁로병들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절을 맞는

전국의 전쟁로병들에게 선물을 보내주시는 크나큰

운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여기에는 가령한 전회의 사선을 넘으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전쟁로병들을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떠나보내시며 그들이 조당

이상하여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도록

하시며는 위대한 어버이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 100

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전승절을 성대히 경축하

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고 제4차 전국로병

대회에 몸소 참석하여 불비축을 헤치면 전화

의 그날로부터 위대한 수령님들께 당을 따라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강성변영을 위하여 한생

을 광그리 바쳐온 로병들을 열렬히 축하

해주시었으며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고

계신다.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

의 따뜻한 손길아래 궁지 놓은 삶을 누려가고있

는 전쟁로병들은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또다

시 밟아안은 그 운정에 솟구치는 걱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 모두는 당과 수령의 평도따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전쟁로병들을

비중한 혁명선배로 갚아내 내세워주시고 전진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가장 뜨거

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전국의 전쟁로병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서

사랑과 밀음을 실장길이 간직

하고 최고사령부를 그리며 전승의 기적을 안아

온 1950년대의 조국수호정신으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중앙의 평도를 충직하게 밟들어갈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조선의 미래는 휘황찬란 할 것이다

조선인민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받았으신 4돐에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의 무한한

즈음하여 2017년 배우산위인청 중

대회에 스위스준비위원회, 스위스조선

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

기자회, 스위스조선문화원에서 제7차

전국인민 대회에서 제7차 대회에서

김정은원수의 정역적인 평도에

의하여 지난 4년간 조선은 불폐의

12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강국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으며 미

백두산총대로 안아온 승리의 7.27 당중앙따라 길이 빛내리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선군의 기치들이 역사의 물품을 맞았아 사회주의강국을 힘차게 전진해가는 장엄한 혁사적시기에 우리는 경사운 명절, 전승절을 맞이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3년간의 치열한 조국해방전쟁에서 혁사적승리를 향한 7. 27!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명도 따라 이룩한 영웅조선의 승리를 철망년 길이 및내에 가려는 천만군민의 의지를 우리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다시금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총대로 무리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로 이끌어 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군사의 영예입니다.』

승리의 7. 27을 맞으며 더욱 불타는 절세위인들에 대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알고 친체적으로 혹은 가족별로, 개인적으로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는 인민군인들과 각계층 군로자들,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수산태양궁전광장에 몰려들었다.

둘대문에 부각되어 천연한 빛을 뿌리는 대원수별장 앞에서 사람들은 쉬이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그 범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는 지난 7월 50년대에 이땅우에 전쟁의 불을 지른 침략자 미제와 제국주의 핵합체를 대원수총대로 단호히 징벌하고 기적적전승을 떨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담합없는 경모의 정이 그들먹이 차오르고 있었다.

대원수별장을 가슴에 안으며 광장에 들어선 사람들의 눈앞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대양상이 친환한 빛을 뿐이며 아져왔다.

그 어느때 찾아와도 언제나 태양의 미소를 만면에 담고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사람들을 웃어뜨리며 삼아드렸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서성구역 서천동과 모란봉구역 민통동에서 사는 조정숙, 정봉녀, 김금순 할머니들을 만났다. 8·05 고령의 이들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덤벼든 침략의 뼈무리를 헤쳐나온 후에 청개비리로 전쟁의 열병대를 대원수를 사열하면서 김일성대원수에 대한 그리움



사부처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

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

시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

승리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 원합

세력파의 관가리적질전에서 승리를

揶揄할 수 있었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세

시에 우리는 승리하였다!

뜻깊은 전승절날 주체의 최고성지

의 광장에 절절히 울리는 그들의 목

소리는 그대로 온 나라 천민군인의

마음을 담고서 7월의 하늘가에 힘

차게 어려워졌다.

우리의 가슴은 뻐어울랐다.

횡포한 침략자들을 백두산총대로

짓뭉개버리시고 영웅조선의 승리를

세상에 선보하시면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이

승리에 헌신한 빛을 뿐이며 아져

왔다.

그 어느때 찾아와도 언제나 태양

의 미소를 만면에 담고 계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사람들을 웃어뜨리며 삼아

드렸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서성구역 서천

동과 모란봉구역 민통동에서 사는 조

정숙, 정봉녀, 김금순 할머니들을 만

났다. 8·05 고령의 이들은 우리의 행

복을 빼앗으려고 덤벼든 침략의 뼈

무리를 헤쳐나온 후에 청개비리

로 전쟁의 열병대를 대원수를 사열하면서

김일성대원수에 대한 그리움이

로익한 제국주의 강적 미제와의 전쟁

을 친절히 풀어놓았다.

그들은 대원수를 헤쳐나온 후에

제국주의 학습장을 헤쳐나온 후에

혁명을 위해 모든것을 바친 전세대들의 정신을 굳건히 이어나가자

7. 2. 7!
위대한 이념과 더불어 가렬했던 전화의 나날을 감회깊이 들여다보며 어제 날의 회선용사들이 떠올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

가 우리 가슴 세차게 두드린다.
전쟁시기 우리의 배낭속에는 휠체어와 침대 등이 떠오른 무식들이 많았다. 불러는 고지우에서 그리고 행군의 일정에 옥백마로 지은 밤을 배울려고 떠나온 데도 그들은 그들의 승리를 위하는 한밤을 묵을 수 없이 바쳤다.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던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높이 떠들고 싶어지면 황금이삭 거두어들이면 물갈은 나날을 그려보았고 바로 그 땅, 그 행복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천주를 투여드렸고 용감히 죽어버렸다. ...

발전의 용사를 바우는 후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농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더듬으며

방언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란한일의 수복과 함께 농민들은 피와 땀, 목숨도 아낌없이 바쳤다.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던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높이 떠들고 싶어지면 황금이삭 거두어들이면 물갈은 나날을 그려보았고 바로 그 땅, 그 행복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천주를 투여드렸고 용감히 죽어버렸다. ...

한진의 땅도 목이지 않고 있다.

한진의 땅도 목이지 않아!

로 살며 투쟁할수 있게 해준 신념의 표대, 삶의 기둥이었다.

전쟁의 종합을 한몸에 안으신 그 투로 끝까지 국가적 어려움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적 어려움을 헤쳐나온 후에는 봄나리 물소 어여 농촌을 찾으시어 농민들과 함께 두루도 내시고 물이 조국의 대지 위에 흐르게 하여 농민들을 풍물에 편안하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을 한진의 땅으로 만들었다.

온 나라 고향과 인민을 끌어모으는 강과 함께 흥분에 휩싸이게 한

한진의 땅의 원화마을에서의

봄비 물길과 냉파를 가볍게

돌파해나온 농민들은 그들의

기쁨

